

[로마서강해 보완(18)] 창세기에 나타난 이기는 자와 왕노릇하는 자의 예표는 무엇인가?(창35:9~12)

창세기에 나타난 족장들의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이기는 자와 왕 노릇 하는 자의 예표가 무엇인지를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들어가며: 성경의 균형 잡힌 이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각 부분을 조망하는 넓은 시야와, 개별 단어와 구절의 깊은 의미를 파고드는 섬세한 작업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로마서와 같이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서신서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믿음의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등 다른 성경들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의 의미와 중요성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 그리고 왕 노릇 하는 자를 통틀어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계2:7,11,17,26, 3:5, 12, 21, 21:7).

이기는 자의 의미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상속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 노릇 하는 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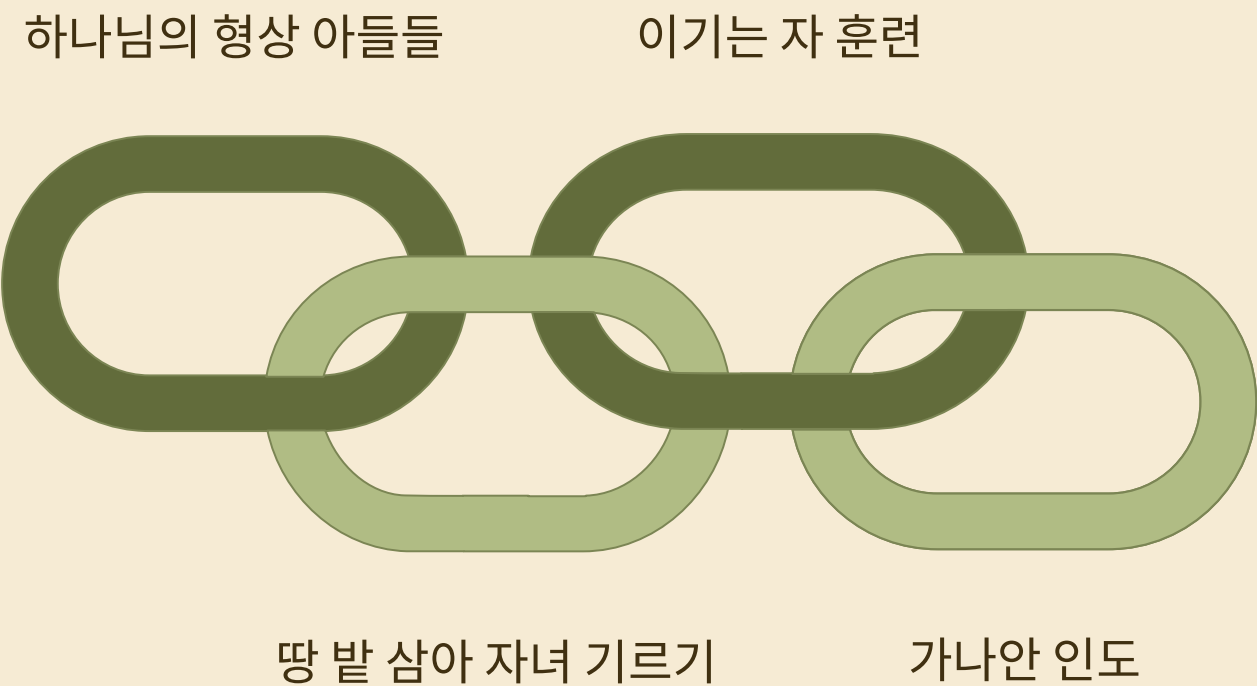
창세기에서의 출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기는 자와 왕 노릇 하는 자의 예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이기는 자의 관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창1:28).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밭'과 같은 것이며, 창세기의 역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그들을 이기는 자로 훈련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기는 자의 약속

1

생명나무의 과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2

둘째 사망의 면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3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게 됩니다.

4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받게 됩니다.

5

생명책의 기록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됩니다.

6

하나님의 보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는 단순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 노릇 하는 자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과 회개로 되어지는 이기는 자

아브라함은 믿음과 회개로 되어지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아들들)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을 통하여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아들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비 데라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 언약을 계승하는 상속자의 예표

이삭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을 통하여 비로소 그것이 인정된다는 상속자의 예표입니다.



둘째 아들

사실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맏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녀

하지만 언약(약속)을 따라 낳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을 언약 계승자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독자로 인정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25살 내지는 36살 먹은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자는 육체를 따라서 나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야곱: 진정한 이기는 자로서 상속자의 예표

야곱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중에 진정한 이기는 자로서 상속자의 예표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는 몇 분 차이가 나지 않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시간적으로 몇 분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이 가진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사모하고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혈통적으로만 본다면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팔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창25:27~34).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된 결정적 사건

장자권에 대한 갈망

1

어릴 적부터 가졌던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야곱을 이기는 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2

압복강에서의 기도

야곱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압복강에서 드린 그의 기도입니다(창32장).

3

천사와의 씨름

기도와 관련된 천사가 나타났고, 야곱은 그를 붙들고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4

이름의 변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이유는 첫째, 믿음으로 이긴 것이고, 둘째, 회개함으로 이긴 것입니다.

요셉: 왕 노릇 하는 자의 예표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와 겹치며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며, 그들 가운데서도 누가 특별히 '왕 노릇 하는 자'가 되는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게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배우는 왕 노릇 하는 자의 특성

고난 속의 신실함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용서와 화해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이는 왕 노릇 하는 자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

요셉은 7년 기근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는 왕 노릇 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요셉의 삶은 이기는 자의 최종 단계, 즉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어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 우리의 신앙 목표

창세기는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 즉 이기는 자가 되고 왕 노릇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칭의를 얻고 생명 분배를 통한 중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즐기치게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왕 노릇 하는 자

요셉처럼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144,000석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 하는 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자,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할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